

#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와 해양 무기체계 무인화가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2/AD전략의 진화를 중심으로 —

박 재 찬\*\*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br>역량강화와 우리나라의<br>대응방안 |
| II. 선행연구 검토  | V. 결론 및 시사점                            |
| III. A2/AD전략의 진화: 중<br>국의 하이브리드 전쟁능력<br>강화와 미국의 대응전략 |  |

주제어 : 중국 군사용 무인기, A2/AD, 하이브리드 전쟁, 모자이크 전쟁

## I. 서론

무인기(UAV)의 개발 및 활용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B-24폭격기를 무인항공기로 개조하여 독일 폭격에 투입하였던 것이 시초이다. 현대적인 무인기의 실전 활용은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공군의 무인기 Predator가 원격 공격에 성공한 것이 최초이다(UPI뉴스, 2021.06.21.).

2019년 리비아 내전 당시 반군인 리비아국민군(LNA)의 정찰 및 공격용 무

\* 본 연구는 2019학년도 영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비(과제번호: 219A380162)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영남대 경영학과(jcpark@yu.ac.kr)

인기 편대가 리비아통합정부군(GNA)가 장악하고 있던 수도 트리폴리에 야간공습을 감행하였고, UN전문가 패널의 조사에 따르면 리비아국민군(LNA)이 사용한 무인기는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산하 청두항공기연구소가 제작한 ‘이룡(翼龍)2호(CH-4의 수출형)’인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신문, 2019. 05.24.). 2021년 8월 말에는 일본 인근에서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Y-8Q대잠초계기와 Y9JB전자정보수집기가 군용 무인기 3대와 함께 출현하였고, 이에 일본 항공자위대는 전투기를 대응출격시켰다(SCMP, 2021.09.11.). “갈수록 정교해지는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가 인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역내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연합뉴스, 2021.09.12.).

중국은 세계최대 무인기 수출국이다. 앞서 제시한 리비아를 비롯하여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국가들이 중국산 무인기를 도입하여 운용 중이다(UPI뉴스, 2021.06.21.).

이처럼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 기술과 활용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기존의 전쟁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수행방식의 등장과 더불어 군사용 무인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2년 이후 A2/AD전략을 실질적으로 추구해오면서 여러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Cole, 2021), 평상시에는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 등을 병행하여 자국의 이익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군사력의 사용도 서슴지 않는 하이브리드전을 구사하고 있다(김재엽, 2019; 홍성민, 2019).

이와 같이 중국이 A2/AD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군사용 무인기 전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A2/AD 전략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실행하는 핵심수단으로서 군사용 무인기 역량이 강화되고 있으며, 해양무기체계의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중국의 의도와 방향에 향후 우리나라가 어떠한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와 해양 무기체계 무인화가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 (박재찬)

## II. 선행연구 검토

### 1. A2/AD 전략

중국은 냉전시절 지상군 위주의 군사력을 보유해왔었다.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군사력 또한 급성장하였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이후 중국의 해군력과 공군력의 대대적인 증강이 이뤄졌는데, 이러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공군력 강화를 미국 입장에서 동아시아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등장한 개념이 A2/AD이다 (Joint Chiefs of Staffs, 2012).



자료 : 류해성(2019) p61

<그림 1> 중국의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A2/AD는 A2(Anti-access: 반접근)와 AD(Aerial Denial: 지역거부)의 합성어로 중국의 동·남부 해안선 기준 200해리 거리에 있는 제1도련선을 대상으로 하는 AD(지역거부)와 200~600해리를 기준으로 한 제2도련선을 대상으로 하

는 A2(반접근)의 2가지로 구분된다(김재엽, 2019).

중국은 국제해양법상 공인된 12해리 영해선을 임의적으로 확장해 일반적으로 200해리까지 적용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sup>1)</sup>을 제1도련선으로 규정하고 사실상의 중국 영해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공해에 해당되는 200~600해리에 이르는 바다에 제2도련선을 설정하고 이를 사실상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화 하고 있는데, 중국이 주장하는 제1도련선에 대한 것이 AD(지역거부)전략이고, 제2도련선과 관련된 것이 A2(반접근)전략이며 이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A2/AD 전략 구분

구분	A2(Anti-access, 반접근)	AD(Area Denial, 지역거부)
개념	제2도련선에 대한 적대세력의 접근억제 및 제1도련선 보호를 위한 원거리 작전 기준선	제1도련선 보호 및 사수를 위한 적대세력의 접근차단
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상의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서의 인지강화</li> <li>- 적대세력에 대한 다층적 압박을 통한 접근 및 침범 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상의 중국 영해선으로서의 입지 굳히기</li> <li>- 침범 시 중국의 군사적 보복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긴장을 조성</li> </ul>
핵심 구현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양해군력 건설(항공모함, 잠수함, 이지스함 등)</li> <li>- 공군전력 현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밀 순항미사일 개발 및 배치</li> <li>- 탄도미사일 전력 강화</li> </ul>

자료: 이병구(2019) p30 <표 1> 수정 보완

중국은 A2/AD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양에서 적대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항공모함 전단, 원자

1) 자국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의미하고, 국가들끼리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칠 경우 국가간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해당수역을 관리할 수 있음.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와 해양 무기체계 무인화가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 (박재찬)

력잠수함, 그리고 이지스구축함 등의 해상전력 강화와 러시아로부터의 기술이전을 통한 첨단공군전력 증강을 통하여 A2전략 뒷받침 하는 군사력을 건설해왔다(양재하, 2017).

한편 A2전략과 연계하여 AD전략을 구현하는 핵심수단으로 각종 미사일 전력을 강화해왔는데 지상공격과 함정공격 모두 가능하며, 사정거리 1,500 km이상인 DH-10 순항미사일을 대량배치함으로써 미해군의 항공모함 작전 활동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괌이나 하와이의 미해군과 미공군 기지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Cole, 2012). 이 밖에도 잠수함 발사용 YH-18 순항미사일, 해군용이지만 폭격기에서도 발사가 가능한 YJ-22 초음속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O'Rourke, 2016).

또한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직접 요격할 수 있는 대함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였다. DF-21대함탄도미사일과 DF-26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은 지상 및 해상 표적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여,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DoD, 2016).

## 2. 반(反) A2/AD(Counter A2/AD)

미국 국방부(DoD: Department of Defense)는 2012년 중국이 A2/AD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Joint Chiefs of Staffs, 2012)을 인지한 이후, A2/AD 대응전략을 마련해왔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반(反) A2/AD의 변천과정

구분	공해전투	JAM-GC	다영역전투
개념	항공모함전단과 동아시아에 배치된 공군력으로 A2/AD 무력화	해공군 전력에 육군과 해병대가 필요에 따라 상륙군으로 참여하는 작전개념	육해공 뿐만 아니라 사이버 우주에 이르기까지 작전영역을 확대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합동작전 개념

핵심전력	해군/공군	해군/공군+육군/해병대	육해공+사이버+우주 전력
비고	폐기	2015년 도입	2016년 도입 (현재는 다영역전투에 JAM-GC 개념을 통합)

자료: 류해성(2019) p67 <그림 2> 수정 보완

일본은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A2/AD는 영유권 분쟁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해양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일본은 중국의 A2/AD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첫째, 자체적인 탐지, 정찰, 요격 체계 강화, 둘째,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MD체계 편입의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 중이다(조은일,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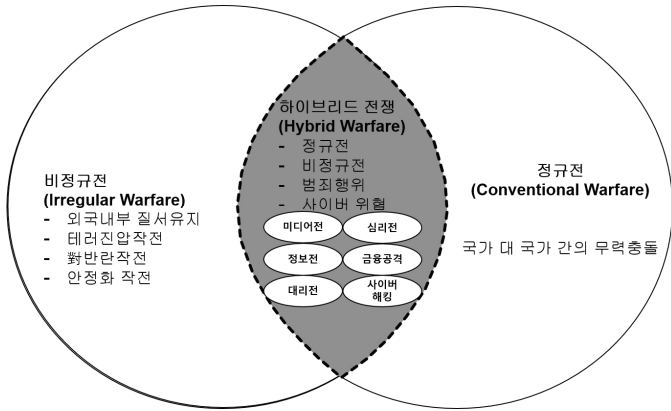
대만의 경우 대만해협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바, 두 가지 차원으로 반(反) A2/AD 전략을 취하고 있다(이병구, 2019). 첫째, 방공 전력 강화를 통하여 유사시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고도에서 고고도에 이르는 다층방공망을 구성하였다. 둘째, 중국이 공격할 경우 이에 대한 반격에 필요한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대만 자체적인 대지, 대함 미사일 전력강화는 물론 최근 미국으로부터 기술지원 하에 기존 대만공군의 노후된 F-16A/B 기종을 최신의 F-16V로 개수함은 물론 66대의 F-16V를 직도입하기로 하였다.

A2/AD를 포함한 중국의 군사력 성장과 전략방향에 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해보면, 첫째, 중국의 군사력 성장과 전략적 의도를 밝히고, 둘째 미국과 중국의 주변국가들이 A2/AD 전략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정작 중국의 A2/AD 전략과 군사력 성장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 Ⅲ. A2/AD전략의 진화 :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능력 강화와 미국의 대응전략

#### 1. 하이브리드 전쟁의 개념과 사례

하이브리드 전쟁은 전쟁의 수행주체, 수행방식, 그리고 공간의 3가지 차원에서 전통적인 전쟁과 구별된다. 전통적인 전쟁은 수행주체가 국가나 무장단체나, 그리고 육해공 물리적 전투공간에서 무력이 상호충돌 하느냐 아니면 가상공간에서 비무력으로 전쟁을 하느냐 등에 따라서 정규전(Conventional warfare)과 비정규전(Irregular warfare)으로 구분되었다(신성균 & 반기현, 2021). 하지만 전쟁수행의 주체가 다변화되고 전쟁방식 또한 재래식 전쟁에서 저강도 분쟁, 대리전, 복합전, 비대칭전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전쟁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정규전/비정규전 구분이 애매모호하게 되었다. 이에 Hoffman(2007)은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를 “국가 또는 특정 집단이 재래식 전쟁능력에 기초한 정규전, 무차별적 폭력과 강압에 의한 테러행위 등과 같은 비정규전 외에 범죄행위, 사이버 위협 등 기존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전쟁”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개념이 더욱 확장되어 이제는 미디어전, 심리전, 정보전, 금융공격, 대리전, 사이버 해킹 등과 같은 개념까지 하이브리드 전쟁에 포함되었다(최현호, 2021).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개념을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자료 : Hoffman(2007), 김법현&김덕기(2021), 최현호(2021)

<그림 2> 하이브리드 전쟁의 개념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전쟁 사례로 2020년 벌어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을 들 수 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흑해연안에 위치한 이웃국가로 정치, 경제, 민족, 종교, 자원, 영토 등의 문제로 전통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들 두 나라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영유권을 놓고 2020년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4일간의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며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로 끝났다.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은 양국의 대규모 병력과 무기가 맞붙은 정규전이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의 대표사례로 간주되고 있으며(김법현 & 김덕기, 2021),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었다.

첫째, 군사용 무인기가 전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은 개전 첫 날인 2020년 9월 27일 터키제 TB2<sup>2)</sup> 군사용 무인기를 활용하여 아르메니아군의 T-72 전차와 BMP-2보병 전투차량을 공습하여 파괴했다. 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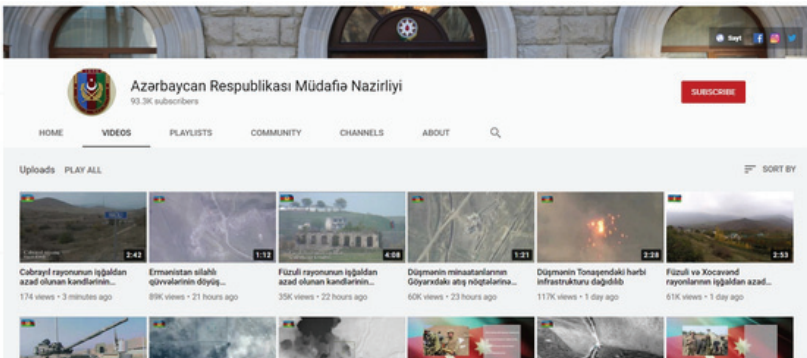
2) 터키의 방산업체인 칼레바이카르가 2014년부터 생산하는 TB2 바이락타르는 길이 6.5m, 날개폭 12m의 무인기이다. 최대탑재량은 150kg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220km이고, 27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4곳의 하드 포인트에 터키제 대전차미사일과 70mm 로켓,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와 해양 무기체계 무인화가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 (박재찬)

국가간 교전에서 기갑전력이 공군기가 아닌 군사용 무인기에 의해 무력화된 최초의 사례이며, 유인항공기에 비해 가격이 5분의 1이하 수준인 무인기를 대량으로 활용하여 적 전력을 효과적으로 파괴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전쟁의 핵심수단으로서의 군사용 무인기의 가치를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신성균 & 반기현, 2021).

둘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측 모두 전쟁기간 동안 소셜미디어(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디어전을 전개하였다.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자체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면서 아르메니아와의 전쟁 현황을 동영상으로 공개하였으며,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그리고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미디어전을 전개하였다. 1991년 미국이 쿠웨이트를 불법 침공한 이라크를 격퇴한 걸프전을 일으켰을 당시 미국의 케이블뉴스네트워크 채널이었던 CNN이 생방송으로 전쟁을 중계하여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다. 이제 소셜미디어가 CNN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전쟁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생중계됨에 따라 전쟁은 재래식 정규전과는 다른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자료 : 아제르바이잔 국방부 유튜브 계정

### <그림 3> 아제르바이잔 국방부가 촬영한 전쟁 동영상

## 2. 중국의 A2/AD전략과 하이브리드 전쟁능력의 결합

중국은 A2/AD전략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해·공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전력 역시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A2/AD 전략에 더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공식적인 물리력 사용은 자제하면서도 중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하이브리드 전쟁 방식의 일종인 ‘회색지대전략(양옥, 2021; 최현호, 2021)’을 구사하고 있다. 예컨대 해군 대신에 해양경비대나 민간어선으로 위장한 해상민병대와 같은 ‘대리인’을 동원하여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에 대응하거나,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특정 국가와 지역에서 정보조작, 심리전 등을 전개하면서 중국에 우호적인 인사를 포섭하거나 사회관계망 네트워크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조직적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최현호, 2021). 또한 이와 같은 방식은 점진적이고 애매모호한 경향이 있어서 당사국 입장에서 중국이 자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인지하기 어려워서 그만큼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중국은 실제로 기존의 육·해·공은 물론 심해와 우주를 포함하는 물리적 전투공간의 통합,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의 통합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중국군의 전투능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물리력·정보역·인지역·사회역<sup>3)</sup> 등을 망라한 하이브리드 전쟁역량 강화를 의미한다(중앙일보, 2021.07.28.).

초창기에 중국이 A2/AD전략을 구사하는 방식은 물리적인 군사력 증강과 같은 직접적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A2/AD전략이 하이브리드 전쟁 방

---

3) 물리역(物理域): 군사적 교전 등이 발생하는 육·해·공, 우주 4개 차원의 지리적 공간역

정보역(情報域): 정보를 생산, 조직, 처리, 공유하는 정보 유통역

인지역(認知域): 개별 또는 집단의 정찰, 이해, 의사결정, 결심, 평가 등의 사유 인식역

사회역(社會域): 집단 내부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 의사결정 등이 이뤄지는 사회 활동역 (중앙일보, 2021.07.28.)

식과 결합하여 더욱 정교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저항과 불인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은 전통적인 A2/AD전략 개념에 의하면 해·공군력을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사수해야할 대상이다. 반면 하이브리드 전쟁방식을 활용할 경우, 다양한 정보전, 심리전 등을 활용하여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고 있는 것이다(최현호, 2021).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회색지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 여러 암초와 환초를 매립하여 인공섬을 만든 뒤 활주로와 항구를 건설하면서 레이더 및 대공미사일 등의 군사시설도 함께 건설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행동은 남중국해를 중국의 실질적인 내해로 만들고 군사화하는 과정에서 기정사실화를 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양욱, 2021; 최현호, 2021).

A2/AD 전략의 핵심수단이 해공군력, 탄도미사일 전력이었다면, 하이브리드 전쟁의 핵심수단은 무인기이다(양욱, 2021; 신성균&반기현, 2021).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에서 무인기가 저강도분쟁을 포함한 하이브리드전쟁에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무인기는 정보수집, 정찰, 감시에서 공격에 이르기까지 군사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인명손실이 없고 값비싼 유인전투체계에 비하여 저렴하고 대량으로 보유할 수 있어서 세계 각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무기체계이다(최현호, 2021).

특히 중국 입장에서 기존 A2/AD전략을 공고히 하고 여러 국가들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 수단으로서의 군사용 무인기의 가치와 효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3. 미국의 대응전략: 모자이크전 전략

이러한 중국의 A2/AD전략의 고수,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쟁역량 강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미국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이하 DARPA)에서는 중국의 A2/AD전략

과 하이브리드 전쟁역량의 결합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8년 모자이크전(Mosaic Warfare) 전략을 도입하였다. DARPA 전략기술국(STO)의 Grayson은 “모자이크전은 개별 무기체계(유무인 등)를 각각의 기능을 가진 타일 또는 퍼즐로 가정한 후 이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시키고, 인공지능(AI)을 통합해서 지휘관이 가능한 전략적 옵션을 활용하여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다. 어떤 무기체계가 특정한 방식으로만 운용된다는 고정관념을 넘어 전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무기체계 간 임무 및 기능 분산 및 연동되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모자이크전의 개념을 설명하였다(DARPA, 2018.07.27.).

모자이크전은 고가의 정교한 획일적 무기체계보다는 경제적이고, 치명적인 무기체계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연결하면서, 변화하는 전장상황에 적의 취약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의 조합을 수시로 변형시켜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유인과 무인 체계를 하나의 팀으로 구성하고, 능력을 분산하여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조합될 수 있도록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적이 대응할 수 없는 속도로 전력의 구성을 유연하게 변화시켜 대응하겠다는 것이 모자이크전의 핵심개념이다. 이를 통해 단 한번의 적 공격으로 아군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닐 수 있다.

미국의 모자이크전 개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는 무인기이다(Grayson, 2018.07.27.). 유무인복합체계 또는 완전한 무인체계를 구성하여 적을 감시, 정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격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서의 무인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미국은 지금보다 더 다양한 용도의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Clark, Patt, and Schramm, 2020).

요컨대 미국이 중국의 A2/AD전략과 하이브리드 전쟁수행능력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대응전략은 인명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고가의 무기체계를 보호할 수 있는 모자이크전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은 유무인복합체계 구축과 유령함대 구성 등을 통한 무인화 대응수단의 확보이다.

## IV.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 역량강화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앞에서 중국의 A2/AD전략의 진화와 하이브리드 전쟁 수행의 핵심도구로서의 군사적 무인기의 효용, 그리고 미국의 대응전략인 모자이크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 역량을 공중용과 해상용으로 나누어 분석해본 뒤, 이러한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 역량강화가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 역량

#### 1) 공군용

중국은 군사용 무인기 분야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종이 넘는 무인기를 개발하여 자국은 물론 이라크,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수출하고 있는 세계 최대 군사용 무인기 수출국이다(UPI뉴스, 2021.06.21.).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기종은 CH-4다. 이라크 정부군은 2015년 12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점령 중이던 라마디를 공격할 때 CH-4로 IS 진지를 공습해 상당한 타격을 입힌 적이 있다.

중국의 또 다른 주력 수출 무인기는 CH-5로, 2017년 생산을 시작해 중동 국가에 다수 판매됐다. 차이홍 시리즈와 함께 중국의 수출용 무인기는 GJ 시리즈가 있다. 사우디는 2016년 GJ-II(수출명 윙롱-II)를 30대 구매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이집트도 이 모델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GJ-II는 감시 정찰 능력도 갖췄지만 최대 480kg에 달하는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공격용으로 분류되는 무인기다.

정찰용에서 정찰·공격 겸용으로 진화한 중국 방산업체 무인기는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2019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국경절 열병식에서는 중국이 몇 년 내 상용화할 무인기를 선보였다.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은 ‘스텔스 무인기’ GJ-11이다. 날개 폭은 14m고, 2t에 달하는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GJ 시리즈 제작사인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이 후속 모델로 개발 중인 GJ-20은

GJ-11 대비 두 배 크기에 작전 반경도 더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 3> 중국의 주요 공군용 무인기 현황

기종	형상	용도	역량 및 특징
WZ-8		정찰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항공모함 공격 탄도 미사일 DF-21D/DF-26의 타격효과 관측용 무인기</li> <li>- 최고속도 마하3.3 이상(추정)</li> <li>- 부분적 스텔스 기능 보유</li> </ul>
GJ-11		공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이 10 m</li> <li>- 익폭 14 m</li> <li>- 2개의 무장창, 4,400파운드 의 내부탑재량</li> <li>- 중국제 WS-13터보팬 엔진 장착</li> <li>- 스텔스 드론</li> <li>- 기본적으로 공군용이나 해상용으로 활용 가능</li> </ul>
CH-7		정찰/전자전/공격 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이 10m</li> <li>- 익폭 22m</li> <li>- 최대이륙중량 13톤(내부무장창에 최대 24기의 미사일 탑재가능)</li> <li>- 10~13km고도에서 마하 0.5~0.6으로 15시간 순항가능</li> <li>- 유무인복합작전 가능</li> </ul>
CH-4		공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MQ-9 Reaper와 유사한 기종</li> <li>- 항속거리 3,500km, 비행시간 40시간</li> <li>- 대당 가격 400만달러</li> <li>-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미얀마, 파키스탄 등이 도입</li> </ul>

CH-5		정찰/공격 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4의 개량형</li> <li>- 탑재능력이 CH-4의 2배인 1t 수준</li> <li>- 중동 국가에 수출</li> </ul>
------	---	----------	---

자료: 저자 정리

## 2) 해상용

중국은 2010년대 이미 해양조사 및 관측용 무인수상정을 상용화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수로를 측량하고 압초 및 항해장애물을 조사하는데 이러한 무인수상정을 다수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분야에서 축적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기반으로 정찰 및 전투용 무인수상정 개발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2016년 10월 공개된 쌍둥선형 ‘SeaFly 01’ 지능형 고속 무인수상정은 자동 학습 능력 및 자동위험회피 능력을 갖추었다. 또한 탑재된 광학전자(Electro-Optical) 탐지장비를 이용하여 수상정찰이 가능하고 경량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8년 2월에는 중국의 한 민간 기업이 81척의 무인수상정을 이용하여 대형을 편성하고 단체기동 시연에 성공함으로써 무인수상정의 집단, 군집운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2018년 11월 ‘瞭望者II’ 무인수상정에서 단거리 유도로켓의 발사시험에 성공했다. 또한 대함·대공유도탄 및 어뢰를 장착하여 운용할 수 있는 ‘JARI-USV’ 무인수상정을 개발하여 해상시험평가를 진행했다. 이러한 동향을 종합하여 볼 때 중국의 무인수상정은 수상감시정찰 능력 및 단거리 공격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경량 유도무기를 탑재한 전투용 무인수상정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무인수상정을 기지발진용과 함정탑재용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있다. 기지발진용 무인수상정은 육상 모기지 또는 도서기지를 중심으로 운용하게 되며 연안 및 주변해역 감시정찰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기지를 중심으로 작전하는 무인수상정은 해상으로 진수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중대형 플랫폼 위주가 될 것이며, 자율작전을 수행하다가 필요시 육상



통제국의 지휘를 받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다. 함정탐재용 무인수상정은 수상함에 탑재 후 필요한 해역에서 운용하는 개념으로 수상함 탑재 및 진수가 가능한 중소형이 주가 된다. 함정탐재용 무인수상정은 임무에 따른 모듈화 개념 적용하고 모함의 지휘통제를 받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다. 향후 중국의 무인수상정은 플랫폼 면에서는 폐쇄형에서 모듈화, 다기능화로, 제어 형태에서는 원격제어, 반자동 제어에서 완전 자율제어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현재는 단순한 대응 알고리즘으로 실제 다양한 전장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제한적이나 향후 인공지능기술과 결합을 통해 인간이 필요시에만 개입하는 반자율제어로, 궁극적으로 완전자율제어로 발전할 것이며 이는 미국에 필적하는 최첨단 수준의 기술이다. 또한 운용방식 측면에서는 현재의 단독운용 방식에서 유무인 복합운용, 무인 군집운용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Dod, 2016).

<표 4> 중국의 주요 해상용 무인수상정 현황

기종	형상	용도	역량 및 특징
마린 리저드		해상감시/ 상륙작전 지원/근접 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이 12~13.5m</li> <li>- 폭 4.14m</li> <li>- 배수량 14.7톤</li> <li>- 흘수 0.55m</li> <li>- 삼동선 선형</li> <li>- 완전자율운항 또는 50km 거리에서 원격조종 가능</li> <li>- 자체 배터리로 8개월 동안 대기가능</li> </ul>
오션 알파		다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군겸용</li> <li>- 쌍동선 선형</li> <li>- 최대 200m길이의 케이블을 활용하여 유무인 복합체계 구성가능</li> <li>- 자체 배터리로 72시간 지속가능</li> <li>- 모듈형 갑판 채택으로 다양한 임무수행 가능</li> </ul>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와 해양 무기체계 무인화가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 (박재찬)

텐싱 1호		해상감시/ 공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이 12.2m</li> <li>- 배수량 7.5t</li> <li>- 최대시속 50노트(92.6km/h)</li> <li>-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인 고속정</li> </ul>
HSU-001		장거리 정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0주년 기념퍼레이드에서 공개된 무인잠수정</li> <li>- 자세한 성능과 특징은 비공개이며 중국은 2대를 실전배치했다고 발표함</li> </ul>

자료: 저자 정리

## 2.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1) 중국의 무인기 역량강화가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중국은 A2/AD전략과 무인기 역량을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시도할 수 있으며 거시적이고 전체적인 위협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2/AD전략의 변형과 하이브리드 전쟁 수행 측면에서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의 발전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공중과 해상으로 나누어 살펴 보려고 한다.

우선 중국은 러시아와의 연합 또는 단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sup>4)</sup>을 60회 이상 침범했다(송재익, 2021). 지금까지의 중국이나 러시아는 유인전투기, 조기경보기, 급유기 등의 유인기 편대를 동원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왔지만, 향후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의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무인기 단독 혹은 유무인기 복합체계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올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중국의 무인기들은 야간에 은밀히 침투할 가능성도 있어서

4)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의 영공은 아니지만, 해안선 기점 12해리까지의 상공을 의미하며, 이는 국제법상 국가의 주권이 인정되며, 특정 국가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기 전에는 진입 전 비행정보를 해당국가에 사전통보하는 것이 관례이다.

기존의 감시정찰 자산으로 인지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서해안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 위협을 들 수 있다. 중국은 공해에 해당하는 백령도 서쪽 21.6해리(40km)까지 인민해방군 군함과 잠수함을 근접시켜 그들이 주장하는 동경124도선까지의 해상작전구역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뉴데일리, 2021.01.27.). 여기서 말하는 해상작전구역이란 제1도련선 내부에 존재하는 중국 해군의 군사력이 닿을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하고 이는 AD전략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최윤희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2013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해군사령원 우성리(吳勝利)제독이 “대한민국 해군 함정은 절대로 서해에서 동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와 작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중앙일보, 2021.07.20.). 이는 중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항행의 자유가 있는 공해를 임의대로 작전구역으로 설정한 것인데, 향후 본 연구에서 소개한 무인기와 무인수상정을 활용하여 우리 해군이 동경124도선을 넘지 못하도록 압박과 해상작전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국의 A2/AD전략이 우리나라 해상안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해양 무기체계 확대 및 무인화는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과 중국은 서해에서 군사작전해역이 중첩되어 있어 해상 및 수중 군사작전 수행 중에 상호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중국은 동경124도를 임의로 설정해 놓고 우리 해군에게 넘어오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추진 중인 해양 무인화 양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국은 자국이 근해라 간주하는 한반도 인접해역에서 무인체계의 운용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기지발진 무인수상정, 함정탐재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하여 인접해역에 대한 정찰능력을 강화하고 우리 해군의 활동을 지속 감시하려 할 수 있다. 또한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획정문제나 이어도 관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 무인체계를 활용하여 강압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지난 2014년 추락한 북한의 무인기가 발견되면서 무인기에 의한 안보위협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는 북한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성능·다기능이며 무인기 관련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이스라엘 등과 견주어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중국의 공군용 무인기의 위협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인기의 약점을 공략하여 상대방의 무인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안티-드론 체계(Anti-drone system)를 구축하는 것과 일반적인 무인기 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보유한 무인전투기(UCAV) 개발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국산무인전투기 KUS-X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아울러 미국의 모자이크전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공군의 유인전투기에 무인기를 결합시키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개발하여 실전에 응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해상전력 강화 및 무인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해군력의 운용방식을 개선하고 전력건설의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 먼저 해양작전용 무인항공기와 해양무인체계를 주 수단으로 하여 ‘해양영역(Maritime Domain) 확장 작전’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종 무인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상대방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해양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한국 관할해역의 외곽 도서 및 해양과학기지를 해양무인체계 발진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군기지나 비행장을 건설할 수 없는 소규모 외곽 도서(島嶼)에 무인수상정 발진기지 및 무인항공기 이착륙기지를 건설하고 무인체계를 원격에서 감시 및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배치한다거나, 무인기지를 기반으로 각종 무인체계를 운용하여 원거리에서부터 상대방의 활동을 사전에 탐지하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 전력이 우리나라의 기준 해역 내로 진입할 경우 공개적인 감시 및 추적활동을 벌여 함부로 분쟁 유발 및 군사력 투사행위를 감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상대방 전력이 핵심해역으로 과도하게 접근하는 등의 도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소형 무인체계 다수를 전방에 전개시켜 상대방의 접근을 감시 및 추적하게 하고, 유인

플랫폼은 상대방의 원거리공격을 방어하는데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 역량이 기존의 A2/AD전략, 그리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전쟁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러한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 역량이 우리나라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와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성장을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룬 연구들이 많았던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A2/AD전략의 진화와 공군용/해상용 무인기 분야 역량강화가 우리 안보에 주는 영향과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A2/AD전략의 변화를 추적하고 기존 전쟁과는 차별화되는 하이브리드 전쟁개념을 소개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모자이크전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중국의 군사적 성장과 위협가능성을 동북아시아 전체가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국한시켜 기술하였다. 둘째, 군사보안 등의 이유로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 기술과 전력을 자세하게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룬 군사용 무인기 외에 중국은 전세계 민간 무인기 시장점유율 70% 이상인 DJI를 통해 민군겸용기술로 세계 무인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단순히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 전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현상에 대한 해석에서 벗어나 이것이 중국의 A2/AD전략과 하이브리드 전쟁 능력의 결합 차원에서 의미를 지니는 것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안보의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김동현, 「미 하원 신설 정보·특수전 소위 첫 청문회...북한, 회색지대 전  
쟁수행 역량세계 4위」. voakorea.com, 2021.03.17.
- 김법현·김덕기 (2021). 「중국의 미국 개입차단을 위한 A2/AD 전력 강  
화와대만 무력통일 가능성에 관한 소고」, 『인문사회』 12(4),  
2955-2966.
- 김재엽 (2019).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 도전과 미국의 군사적 응  
전: 공해전투에서 다중영역전투까지」, 『한국군사학논집』 75(1),  
125-154.
- 뉴데일리, 2021.01.28. 「중국 군함, 매일 백령도 인근까지 접근... ‘서해  
공정’인가?」.
- 박운일·정삼만 2018.12.01.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회색지대전략’-  
중국 해저 무인기지 추진의 파장」, KIMS Periscope 제142호, 한  
국해양전략연구소.
- 송재익 (2021). 「중·러 군사협력 변화와 동북아 안보 영향 연구: 한반  
도의 지정학 시각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7(3), 105-131.
- 서울신문, 2019.05.24. 「테러 위협 대응 최고 무기’... 中 군사용 드론 세  
계 시장 장악」.
- 신성균·반기현 (2021).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으로 살펴본 제2  
차 나고르노-카르바흐(Nagorno-Karabakh) 전쟁」, 『국방연구』,  
64(2), 49-81.
- 양욱 (2020). 「회색지대 분쟁 전략: 회색지대 분쟁의 개념과 군사적 함  
의」, 『전략연구』, 27(3), 249-280.
- 양재하 (2017). 「미·중 군사전략의 변화와 한국군의 대응방안- A2/AD  
전략과 JOAC 영향을 중심으로-」, 『군사연구』, 143, 439-477.

- 연합뉴스, 2019.09.12. 「중국의 군사 드론 사용 증가, 인접국에 골칫거리」.
- 이병구 (2019). 「A2/AD와 Counter A2/AD: 일본과 대만의 Counter A2/AD와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한국군사』, 5, 25-58.
- 조은일 (2019). 「일본 방위계획 대강의 2018년 개정 배경과 주요내용」, 『국방논단』, 제1742호(19-3).
- 중앙일보, 2021.07.20. 「중국 “동경 124도 서해 넘어와 작전하지 말라”」.
- \_\_\_\_\_, 2021.07.28. 「중국 “AI 주도 미래전쟁선 미국과 해볼 만” 판단」.
- 최현호 (2021). 「회색지대 전략과 하이브리드 전쟁: 새로운 안보 위협에 국가적 대비태세 필요」, 『국방과 기술』, (508), 36-45.
- 홍성민, 「사드 보복은 中 ‘하이브리드 전쟁’ 도발」 신동아 2019년4월호 (716), 194-207.
- UPI뉴스, 2021.06.21. 「군사용 드론, 전쟁의 문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됐다」.

#### 해외문헌

- Clark, B., Patt, D., and Schramm, H. 2020, *Mosaic Warfare: Exploit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ous Systems to Implement Decision-centric Operations*,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Washington, D.C.)
- Cole, J. M. 2012. “China’s Growing Long-Range Strike Capability,” *THE DIPLOMAT*.
- DoD, 2016.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6 (Washington, D.C. : DoD, 2016)
- Grayson, Tim. 2018.07.27. “Mosaic Warfare.” Keynote Speech delivered at the Mosaic Warfare and Multi-Domain Battle, DARPA Strategic Technology Office.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와 해양 무기체계 무인화가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 (박재찬)

- Hoffmann, F. G. 2007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Hybrid Wars* (Potoma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rlington Virginia).
- Joint Chiefs of Staffs. 2012.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JOAC).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 O'Rourke, R. 2016.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Washington, D.C.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6.
- SCMP 2021.09.11. "Regional stability 'at risk' from China's growing use of military drones".

〈국문요약〉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와 해양 무기체계 무인화가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2/AD전략의 진화를 중심으로 —

중국은 아시아에서의 영유권 확보 및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위하여 A2/AD전략을 추구해오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군력과 공군력의 강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전력 강화를 추구해오던 중국은 최근 심리전, 사이버전, 금융공격, 여론전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을 적극 도입하면서, SNS나 군사용 무인기와 같은 새로운 수단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공군용으로 WZ-8, GJ-11, CH-7, CH-4, CH-5와 같은 군사용 무인기를 개발하여 자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200대 이상 수출하여 세계 최대 무인기 수출국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린리저드, 오션알파, 텐싱 1호, HSU-001과 같은 무인수상함을 개발하여 A2/AD전략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중에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 역량강화는 한국에게 KADIZ 침범, 서해상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 등의 안보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본 연구는 무인전투기 개발, 안티-드론 체계 개발, 무인수상함 개발,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and Countermeasures of China's  
Strengthening of Military Drone Capabilities and  
Unmanned Naval Weapon Systems on Korea's Security  
– Focusing on the Evolution of the A2/AD Strategy –**

**Jaechan Park**

China has been pursuing an A2/AD strategy to secure sovereignty in Asia and weaken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China, which has been seeking to strengthen naval and air power and strengthen cruise missiles and ballistic missile power as a means of implementing this, is strengthening new means such as SNS and military drones by actively introducing the concept of hybrid war.

Specifically, China has developed military drones such as WZ-8, GJ-11, CH-7, CH-4, and CH-5 for air force, exporting more than 200 drones to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s well as to its own country, making it the world's largest drone exporter. In addition, it is actively used as a means of implementing A2/AD strategies by developing unmanned water boxes such as Marine Leisure, Ocean Alpha, Tensing No. 1, and HSU-001.

Such strengthening of China's military drone capabilities could come to Korea as security threats such as invasion of KADIZ and China's territorial claims in the West Sea, and this study suggested countermeasures such as development of unmanned fighter jets, anti-drone systems, unmanned water vehicles, and unmanned complex systems.

중국과 중국학 (제45호)

Key words: China's military drone, A2/AD, Hybrid war, Mosaic war

---

• 투고: 2021년 12월 04일 / • 심사: 2022년 01월 16일 / • 게재확정 : 2022년 01월 20일